



소통의 중심으로 부상한 연합뉴스 파업텐트 시민들은 연합뉴스 파업 응원하고, 조합원들은 이야기 꽃피워

한빛공원에 텐트가 들어선 지 오늘로 8일째다. 연가투쟁 당시 팔뚝질조차 어설펠던 조합원들이 차가운 보도블록 위에 파업텐트까지 세우게 된 것은 오로지 연합뉴스를 바른 회사로 바꿔보겠다는 일념 하나였다. 좁은 텐트 안에서 인스턴트 식품으로 허기를 달래며 새벽의 한기와 한낮의 더위를 견디는 일은 쉽지 않았다. 그러나 텐트 지킴이들은 사원들의 목소리에 귀를 닫은 '불통'에 맞서 고자 세운 파업텐트 안에서 '소통'이라는 소중한 가치를 배우고 있다.

◇ 도심에 텐트촌, 선전 효과 '제법이네'

...시민과의 소통 강화 = 번쩍번쩍한 고층빌딩 앞에 세워진 연합뉴스의 파업 텐트촌은 청계천과 종로-명동 사이를 오가는 시민의 눈길을 사로잡기 충분했다.

많은 시민이 발걸음을 잠시 멈추고 텐트 주변에 세워진 피켓을 꼼꼼히 읽었으며, 일부는 연합뉴스의 파업 배경을 설명한 글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찍어 가기도 했다. 길거리에서 노보를 나눠주는 것보다 선전 효과가 더 크며 텐트농성이 몸은 고돼도 보람차다고 조합원들은 입을 모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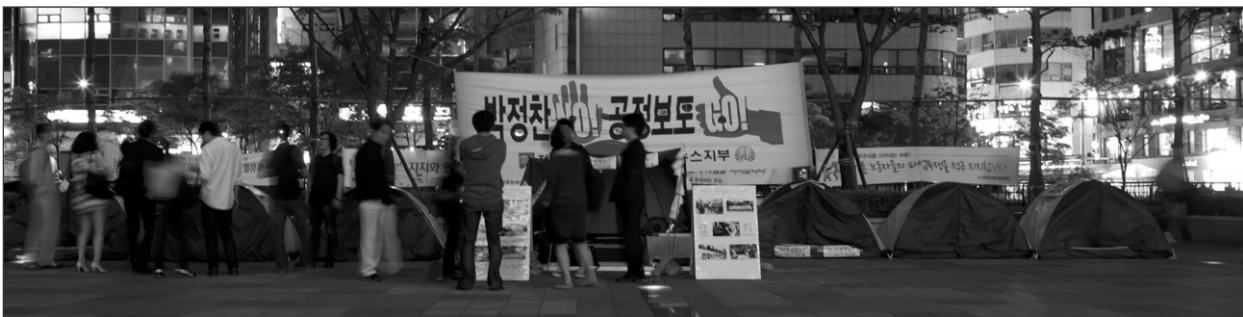
아예 텐트로 찾아와 적극적으로 연합뉴스 파업을 응원하는 시민도 적지 않았다. 지난 14일 오후에 텐트를 지켰던 한미희 조합원(사회부)은 한 시민으로부터 뜻밖의 투쟁기금을 받았다.

한 조합원은 "어떤 아주머니가 텐트 안으로 얼굴을 내밀고 5만원을 내밀며 '힘내라' 라고 응원해줬다"면서 감사한 마음에 텐트 안에 있던 몽셀통통과 콜라를 얼른 내어 드렸다고 전했다. 오늘도 40대 남성이 성금 10만원을 주고 갔다.

출판사에 다닌다는 또 다른 30대 시민은 "연합뉴스가 파업하는 바람에 (책 관련) 기사가 많이 안 나와 아쉽다"면서도 "연합의 빈자리를 크게 느끼고 있다. 승리를 기원한다"고 응원하기도 했다.

그 밖에도 수많은 시민이 그냥 지나치지 않고 텐트로 몸을 숙여 "응원합니다", "힘내세요"라는 말로 난생처음 텐트 농성에 나선 조합원들을 독려했다.

때로는 웃지 못할 해프닝도 있다. 한 노숙자가 "젊



은 사람들이 활동해야 하는데 텐트 속에서 지내고 있으니 어떡하느냐?"라며 조합원들을 근심 가득히 바라보기도 했다. 텐트 앞에 앉아서 다짜고짜 사회에 대한 불만을 한참 쏟아내는 행인들도 적지 않았다.

17일 오전 텐트 지킴이였던 이울 조합원(증권부)은 "어떤 할아버지가 텐트 앞에서 20분 동안 성을 내고 돌아갔다"라면서 "당황스럽지만 국민에 사죄하려고 텐트 농성에 나섰는데 말이 안 되는 말을 한다고 해서 안 들을 수 없다"고 말했다.

◇ "酒 사라지니 대화가 오더라"...선후배의 재발견 = 파업텐트는 청정 금주구역이다. 빨간 화투장도 불허다. 이렇다 보니 좁은 텐트 안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재미있는 놀이는 '수다'였다. 시간을 보내려고 시작한 가벼운 수다는 파업을 주제로 한 토론으로 불이 붙었다가도 이내 선후배간 마음의 벽을 허무는 진솔한 대화로 이어졌다.

14일 야간 텐트 지킴이였던 임형섭 조합원(산업부)은 "선배들과 밤새 이번 파업에 대한 이야기꽃을 피우느라 거의 잠을 못 잤다"고 했다. 임 조합원은 "술도, 고스톱도 금지됐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대화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 "그러다 보니 평소 잘 모르고 어려웠던 선배들과 벽이 사라지는 듯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오전 당번과 교대하고서 인근 사우나로 직행, 못다 한 수다를 떨었다.

15일 오전 텐트 지킴이였던 고유선 조합원(경제부)도 밤새 텐트를 지켰던 야간팀과 교대하면서 이런 저런

얘기를 많이 나눴다. 고 조합원은 "평소 타 부서 선배들과 대화할 기회가 많지 않은 게 현실인데 텐트 농성 덕분에 흔치 않은 기회가 생겼다"며 즐거워했다.

막내 김경운 조합원(미디어과학부) 역시 선배인 김희선 조합원(산업부)과 함께 16일 오후에 텐트를 지키면서 자신이 입사하기 전 회사 상황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김 조합원은 "선배와 사는 지역도 가까워 동네 이야기도 많이 했다"면서 "이전에는 김 선배를 전혀 몰랐는데 이번 기회로

많은 얘기를 나눠서 좋았다"고 농성 소감을 밝혔다.

출퇴근 시간엔 부장급 선배들이 간식을 싸들고 텐트를 방문해 후배들을 격려하는가 하면, 새벽에는 일부 만취한 고참 선배들이 찾아와 가슴에 쌓아뒀던 감정을 격하게 털어놓는 등 날이 갈수록 파업 텐트촌에 사람 냄새가 풍겼다.

◇ 텐트 지킴이들이 기억해야 할 'Tip 3'

① 오전·오후팀이라면 얇은 옷 여러 벌 겹쳐 입어라 = 텐트가 보도블록 위에 있어 아침엔 춥다가 오전 10시께부터 갑자기 더워진다. 변덕스러운 온도 변화에 대처하려면 입고 벗기 쉬운 옷을 여러 벌 겹쳐 입어 보자.

② 야간팀이라면 담요·오리털 점퍼 필수 = 텐트 바닥에 스티로폼이 깔렸지만 밤이 되면 땅바닥에서 한기가 올라오고 밤 공기도 쌀쌀해진다. 임형섭 조합원은 "잠을 청하려다 너무 추워 쑥스럽지만 함께 있던 선배와 '한 담요 덮기'를 시도했다"면서 새벽 추위에 단단히 대비하라고 당부했다.

③ 집에서 과일 간식을 준비해 가자 = 텐트 안에는 의외로 먹을 게 많다. 선후배들이 오고 가는 길에 치킨, 피자, 과자, 빵, 음료수 등 온갖 먹을거리를 갖다주기 때문. 그러니 집에서 간식을 준비하려면 텐트에 없는 과일이나 채소를 가져가는 것도 좋을 듯하다. 식사는 교대로 나가 끼니를 해결하기보다는 주로 중화요리, 피자, 치킨, 도시락 등을 텐트로 배달시켜 함께 먹는 경우가 많다.■

새내기 조합원의 파업투쟁 동참기

※지난해 말 입사한 새내기 조합원들이 파업투쟁에 동참한 지 오늘로 보름이 됩니다. 이들은 선배들이 투쟁하는 50일 간 출입처에서 홀로 남아 고강도 업무를 떠맡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뒤늦게 파업에 동참해 대오에 새 힘을 불어넣어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새롭고 처음인 이들이 투쟁기간 느꼈던 바를 그들의 목소리를 통해 직접 들어보고자 합니다.



권숙희(경기북부취재본부)

반백일이나 늦었습니다. 선배들이 이끌어온 대오에 뒤늦게 뛰어들어 파업 새내기입니다. 그리고 다시 보름. 그 사이 사측은 이차 업무복귀 명령, 쟁의행위금지처분 신청, 수차례 엄포 혹은 회유를 했습니다. 파업부터 모든 것이 체계는 첫, 첫, 첫이었지요.

첫 직장, 첫 파업. 특히 첫 출입처에서 이탈한다는 사실에 고통이 컸습니다. 이즈음 가슴에 딱딱하게 박히던 한 마디. '수습 딱지를 갖 뎀 기자가 무엇을 아느냐.' 지난 보름은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었습니다.

곰곰이 돌아켜보니 '공정보도'란 구호는 멀리 있지 않았습니. 수습 때 반FTA 시위 현장을 나갑니다. '연합뉴스' 스티커를 가려야 한다는 게 어느샌가 자연스럽게 습니다. 시민들은 제가 어떤 기자인지 모릅니다. 일부가 바라보는 연합뉴스의 이미지가 그러할 뿐이다, 라고만 생각했습니다. 당시엔 마냥 억울하다는 생각뿐이었죠.

파업하며 '억울함'은 '부끄러움'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일부도 우리가 취재해야 할 대상이고, 그 일부의 이미지가 바로 우리의 이미지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알았다면 바뀌 나가야겠쎄. 어디서나 자유롭고 당당한 기자, 이상이 아니라 현실이어야 합니다.



박경준(정치부)

예전에 '언론사 파업'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푸른 수의를 입고 오라에 묶인 채 환하게 웃는 손석희 교수의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입사 전 그 사진을 보며 기자가 되면 공정보도를 위한 투쟁에는 물불 가리지 않고 동참하겠다고 마음먹은 적 있습니다. 그때까지 파업은 이상이었습니다.

그 영광의 기회(?)가 생각보다 일찍 현실로 찾아와 당황했던 게 사실입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파업이기에 부인에게 돈 좀 모아둔 게 있느냐 물어봤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파업하라는 무덤덤한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두 달 가까이 기사를 쓰지 못하는 선배들의 담대함을 따라가려면 아직도 멀었다 싶어 부끄러웠습니다.

그 사이에 한 아나운서는 진실과 사실 사이의 촘촘한 경계를 오가느라 피로했다며 일터로 돌아갔습니다. 그의 고민이 우리의 고민과 크게 다를 거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차라리 이상과 현실 사이의 경계를 오갔다 했으면 더 솔직하게 보였을 듯합니다.

어쩐 일인지 시간이 지날수록 제가 생각하는 그 둘 사이의 경계는 더욱 험거워집니다.

"공 선배가 징계받으면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두 번째로 징계받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선배들이 한둘이 아닌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잘 알고 있습니다. '파업'이라는 이상이 현실이 됐듯 '공정보도'라는 이상도 곧 현실이 되리라 믿습니다.



박수윤(경제부)

안녕하십니까. 작년 11월에 입사한 경제부 막내 박수윤입니다. 파업 대오에 합류하고 달라진 소소한 일상을 꼬아 봅니다. 우선 아침 기상 시간이 달라졌습니다. 과천 기획재정부로 출퇴근할 때면 오전 5시30분에는 집을 나서야 했는데, 아침 집회에는 8시50분까지만 가면 됩니다. 잠을 푹 자니 피부도 좋아졌습니다. 특히 오랜만에 효도하는 딸이 됐습니다. 작년 추석 이후 처음으로 고향에 다녀왔습니다. 올해 정년퇴직하신 아버지는 차비에 보태라며 용돈까지 쥐여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파업으로 달라진 건 제 시선입니다. 명동 거리의 일본인·중국인 관광객 속에서 파업 선전전을 벌인 파업 첫날.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경찰 수습 때 시위현장에서선 얼른 취재가 끝났으면 하고 발을 동동 굴렀는데, 직접 피켓을 들고 시내 한복판에 서보니 시위대의 입장에 조금은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취재 현장에서는 작은 목소리도 소홀히 하지 않고 귀담아들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10년, 20년이 흘러서 후배들에게 무용담을 늘어놓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3년 만의 파업, 선배들 없이 혼자 출입처를 맡던 시간, 시내 한복판에서 공정보도를 외치던 선전전, 심지어 노조 체육대회에서 선보인 파업 체조까지. 이 모든 것이 연합뉴스를 바로 세우는 데 작은 보탬이 됐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

오늘의 파업 키워드* **“피켓”**

파업 65일 내내 피켓은 조합원의 걸을 지켰다. 그간 조합원들이 만든 수많은 피켓을 관통하는 목소리는 하나다. 박정찬 사장 퇴진시켜 연합뉴스 바로 세우자!

'독해진' 피켓 문구, 박 사장을 어찌하랴
파업이 길어짐과 동시에 조합원들의 점잖았던 피켓 문구가 독해졌다.
두 번째 피켓 제작 행사가 있었던 지난 5월2일, 조합원들은 박정찬 사장에 대한 원망의 마음을 가감 없이 드러냈다. 임화섭 조합원(보도국 파견)은 '박정찬을 점지해준 삼신할매 자폭하라!'와 '삼신할매 배후조종 옥황상제 각성하라!'는 독기 어린 피켓 시리즈로 환호성을 받았다. 윤선희 조합원(보도국 파견)도 '후배들이 굶고있다 밥숟가락 넘어가냐'는 피켓으로 울분을 토했다.

특종기자 조성흠 사진
조성흠 조합원(사회부)은 '박정찬이 사장이면 조성흠도 특종기자'라는 피켓으로 큰 웃음을 선사했다. 그는 '사장이 내 피켓을 보고 못 견뎌 나가게 하겠다는 독한 마음이 있었다'는 제작 후기를 남겼다.
조 조합원이 아직 특종기자로 남아있는 것이 연합뉴스의 안타까운 현실!

피켓에 담긴 부서별 특성
조합원들이 박정찬 사장 퇴진과 공정보도의 엄원을 담아 처음 피켓 제작에 나선 것은 지난 3월19일. 총파업 5일째였던 이날, 출신 성분(?)을 숨기지 못한 다수 조합원들이 부서별 특성이 한껏 돋보이는 피켓을 만들었다.
북한부는 '핵무기보다 무서운 연임 폭탄, 제거하라 PJC 폭탄'을, 국제뉴스부는 '왔다! 아랍의 봄, 오라! 연합의 봄이라는 문구를 피켓에 적었다.
오정훈 조합원(다국어뉴스부)은 불어 피켓을 들고 우아한 외국어 발음을 구사, 큰 관심을 받기도 했다.

피켓의 팔도유람
'Dancing Reporters'라는 동영상을 만들어 화제를 불러일으킨 입사 2년차 조합원들은 5월 첫째 주, 피켓을 들고 전국을 돌며 시민 선전전을 벌였다.
바닷바람, 강바람을 맞은 이유도 있지만 '박 사장이 누꼬?'라는 시민들의 눈총을 받은 피켓이 특히 너털너털해졌다고, 외부용 피켓은 이해하기 쉽게 만듭니다!

노조 전속 디자이너 박영석 조합원
손 피켓과 함께 야외 집회를 빛낸 '박정찬 NO! 공정보도 GO!' 현수막 디자인의 주인공은 공재픽뉴스팀 박영석 조합원이다. 그래픽뉴스팀 박영석은 그는 현수막 제작을 의뢰받은 그는 업무시간 중 30분간 짬을 내 작업을 마쳤다. 손 피켓을 만드는 줄 알고 페이스북 '좋아요' 아이콘의 귀여운 느낌을 디자인 포인트로 잡았다고. 나중에 엄청나게 크게 제작된 현수막을 봤을 때 잠시 아찔했다. 하지만 현수막을 볼 때마다 뿌듯하다고 한다.
파업 한 달 콘서트 포스터, 시민선전전용 유인물 디자인, 단체 티 디자인까지 도맡은 박 조합원은 누가 뭐래도 노조 전속 디자이너~

'분노하라! 연합뉴스' 손 피켓은 누가?
파업 첫날부터 조합원들은 '분노하라! 연합뉴스'가 쓰인 하얀 손 피켓과 함께했다. 다 함께 위로 들어 올리면 '그림 되는' 장면이 나왔던 손 피켓 디자인에는 전승엽 조합원(미디어랩)이 힘을 보탰다. 그는 '분노하라'라는 글씨를 강하게 표현하고 싶었다면서 "자세히 보면 폰트 가장자리에 꺾은 것처럼 구멍이 뚫려 있다"고 강조했다.

“분노하라! 연합뉴스”